

## 1. 머리말

2002년 월드컵 경기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에 따른 경기 활성화로 인하여 산업재해 증가가 예상됨으로 근로자의 환경과 건강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근로자가 쾌적하고 건강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도부터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매년 수립되는 노동부의 사업계획에 구체적인 시책을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산업재해 취약부분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지원과 산업보건전문조직 및 인력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재래형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 사항으로 11대 기본수칙을 지키도록 2년째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4년까지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통하여 산업재해예방과 산재감소에 노력 할 것입니다.

## 2. 산업보건정책의 주요 방향

2002년도 산업보건정책의 주요 방향은 크게 네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체 산업재해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둘째, 단순반복작업이나 중량물 취급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극대화 시키고 셋째, 근로자 건강진단을 내실화하고 사업장 보건관리를 강화하여 근로자 평생건강관리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업장 분

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전 국민적 안전보건의를 고취하는 것입니다.

### 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활동강화

50인 미만 사업장 74만개소 가운데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및 건설현장 17만 개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20일 이후 'CLEAN 3D'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CLEAN 3D'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CLEAN 3D'조성 사업은 1만 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시설개선을 무료로 지원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은 13만 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및 수리·보수를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도우미 운영사업은 '건강도우미'를 채용하여 3만 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상담, 혈압검사, 응급의료품·보호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나. 산업보건 취약분야의 집중관리

#### 1)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강화

단순반복작업이나 중량물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 전담지원반'을 구성하여 선박건조·수리업, 전자제품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관리(150개소)를 하고 있으며, 작업관련성질환 다수발생 사업장 사업주,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종별 사업장 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 구축·운영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뇌심혈관 질환 유해요인 파악, 건강상담 등의 지원 및 건강증진운동사례 보급, 체력측정장비 대여등 기업의 자율적 건강증진운동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2) 작업환경취약 사업장 등급별 관리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 유해인자가 노출기준을 초과하거나 직업병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감독관이 작업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수시 확인·관리 감독하는 감독관 책임관리(500개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진·소음에 대한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석면등 제조·사용허가 사업장 및 벤젠·납등을 취급하거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별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지원을 받아 유해인자별로 중점관리(800개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 근로자 평생건강관리 기반 조성

### 1)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 및 근로자 건강진단 내실화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질병별 및 지역별로 직업병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이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직업병 예방활동에 활용하고 직업성 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련업무 종사자에게 배부하는 건강관리수첩 교부 대상물질을 현재 11종에서 5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규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확대,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보강, 진단안내 및 홍보강화와 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 강화로 신뢰성을 제고하여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근로자 건강진단을 내실화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 2) 사업장 보건관리 강화

사업장 보건관리의 강화를 위하여 300인 이상 사업장(900개소)과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800개소)에 대해 '사업장 주치의'를 갖도록 적극 지도하여 사업장 근로자 진단사 후관리, 고혈압등 기초질환자 건강관리지도, 음주·흡연 또는 운동부족등 나쁜 생활습관 개선지도, 건강교육 등을 담당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진단 일자·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

성·관리토록하는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제도’의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작성한 카드를 활용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지속화하여 퇴직할 때까지 건강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위해 ‘02년도말 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보건관리자 직무 등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라. 안전보건 11대 기본 수칙 지키기

2001년도 부터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선정·보급하여 실시함으로써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사업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2년에는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의 사업장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금속제품제조·가공업, 화학제품제조업 등 산업재해 취약업종에 대해서 업종별 특성에 맞는 11대 기본수칙을 개발·보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언론홍보, 업종별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지역별·업종별 간담회의 개최 등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11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재해 취약업종에 대해서 업종별 특성에 맞도록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개발·보급하고, 나머지 업종은 기본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3. 산업보건전문인력의 역할

최근 비정규직, 외국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건강문제 대두, 작업관련성 질환의 증가, 근로자의 산업보건의식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에 대한 요구 증가등 산업보건을 둘러싼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정부주도 정책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산업보건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OECD 및 ILO 가입 등에 따른 협약 의무 준수로 안전보건 수준

을 조속히 국제적 수준으로 접근시켜야 하는 국제·경제적 배경으로 사업장 자율보건관리체제라는 새로운 산업보건 패러다임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산업보건 전문인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의 사업장 자율보건관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서 사업장과 근로자를 아우르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산업보건의식을 강화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사업장 내에서 기획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자율보건관리가 수행될 수 있는 기초를 확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사업은 4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도록 하는데, 산업보건전문인력의 공로는 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21세기 산업보건사업은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산업보건 전문인력들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산업보건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 인간공학전문가 등 산업보건인력의 전문분야별로 직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업환경관리를 작업관리와 건강관리로 나누어 작업관리는 산업위생사 및 인간공학전문가로 하여금 수행케 하고, 건강관리분야는 산업의학전문의, 산업간호사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번에 산업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를 보건직 사무관으로 채용하여 다양한 근로자 건강문제를 신속히 대처하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원-스톱 지도·감독·자문을 제공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유지·증진 및 산업보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는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사업장에 가장 많은 수가 배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와 추진중에 있는 산업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장 보건관리 체계가 한층더 개선되고, 발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